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Hanyang Univ. School of Business

FOREIGN BUSINESS INTELLIGENCE



Contents August 29, 2012

Biweekly Report

- 2** Africa on the Rise
배인혜, from The New York Times
- 5** Google: Central Banks' New Economic Indicator
박은영, from Bloomberg Businessweek
- 8** Spotify Is Growing—But Why Isn't It Growing Faster?
김시연, from TIME
- 10** My Dollar, My Rules
조경흠, from The Economist

Cover Stories & Special Report

- 13** What's in a Title? Overcoming a 'Crisis' of CEO Credibility
임소연, from Knowledge@Wharton
- 16** Is the Stock Market Really Dying?
김효진, from TIME

Africa on the Rise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6.30\)](#)

* 요약자: 배인혜 (ihgrace@hanyang.ac.kr)

* 키워드: 아프리카, 경제 발전, 민주화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 발전기”

□ 온갖 부패와 테러, 기아의 상징인 아프리카가 2015년 세계 최고 경제 성장국이 될 것으로 전망

-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해외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
- 아프리카는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10개의 경제 중 6개가 아프리카 국가에 해당
 - 국제통화기금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성장국 상위 10개국 중 7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이 아프리카를 빈곤과 재난의 국가로 인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활발하게 투자 중

- 미국 국회가 ‘아프리카의 성장과 기회(AGOA)’ 법안의 갱신을 지연시킴에 따라 미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무역에 장애가 발생
 - AGOA는 미국 시장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여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며, 수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획
 - 그러나 법안 갱신의 지연으로 인해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실
- 현재 아프리카에게는 해외 원조보다 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보다 지속가능하고 궁극적인 발전 방안

□ 하지만 내부 부패로 인한 번거로운 절차와 높은 최저 임금, 정치적 억압, 그리고 불

안정한 치안 상태 등은 아프리카 스스로 무역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들

- 아프리카 각국에 만연한 관료적 형식주의가 기업 활동의 불편을 초래
 - 스와질란드에서 회사를 세우는 데 12개의 절차와 56일이 소요되고, 니제르에서 공장을 세우는 데 326일이 필요하며, 세네갈에서는 법정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 43개의 절차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 방글라데시 의복 생산자들의 최저 임금이 한 달에 37달러인 반면 레소토의 최저 임금은 120달러로 경쟁력이 없음
- 에티오피아에서는 살인과 강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아 범죄가 빈번해 치안 상태가 불안
 -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기사를 썼던 기자는 테러리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음

□ 사회 보안 및 무역 절차에 대한 몇몇 문제점들을 제외하면 아프리카는 과거보다 상당히 민주화 되었고, 시장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음

- 사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테크노크라시를 채택하여 독재자의 횡포 방지
- 레소토와 같이 민주화된 국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 착수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경제의 부흥을 예고하는 대표적인 사례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

기술관료들에 의한 지배 체제를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문적 지식, 과학이나 기술에 의해 사회 혹은 조직 전체를 관리 운영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들을 소유하는 자가 의사결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 시스템, 혹은 그와 같은 견해를 충칭하는 말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하지만 선진국의 보도 매체는 항상 아프리카의 재난과 기아에 초점을 맞추어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저해

- 소말리아의 극 빈곤과 수단의 집단 학살, 나이지리아의 테러리즘, 콩고의 반군 등 재난에 관한 기사와 뉴스들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아직도 아프리카 전체가 집단 학살과 기아에 휘청거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함

-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에 관한 보도가 보다 중요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큼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
- 그러나 현실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치안은 점차 안정되고 있고, 그 중 몇몇 국가의 경제는 크게 성장 **F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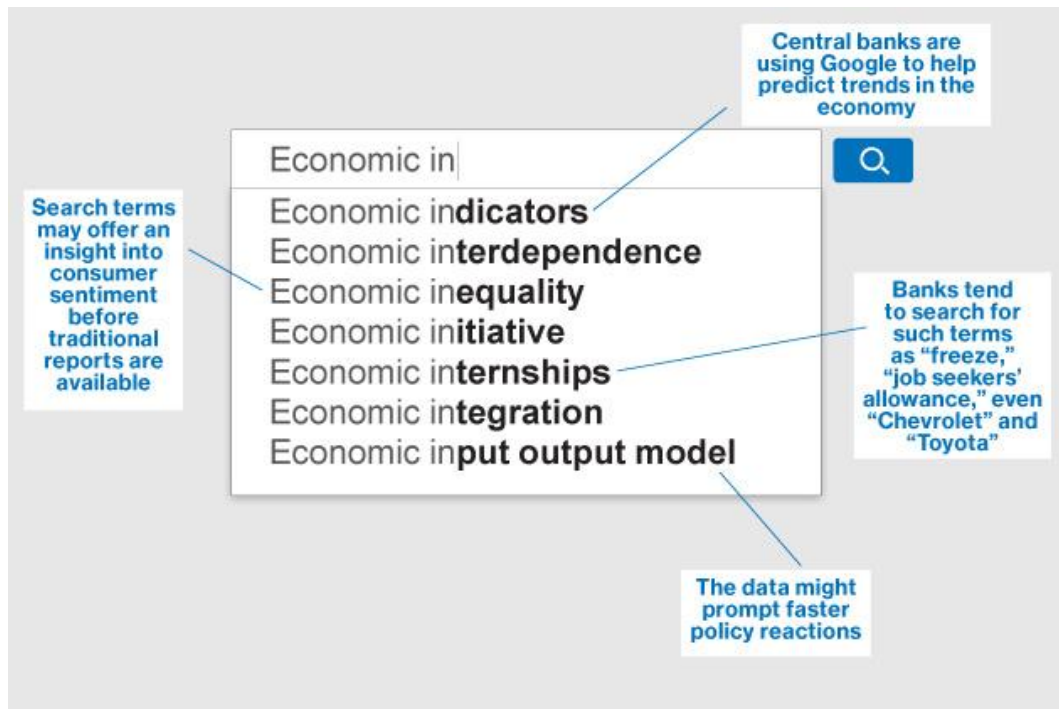
Google: Central Banks' New Economic Indicator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2.08.09\)](#)

* 요약자: 박은영 (evenstar@hanyang.ac.kr)

* 키워드: 구글 검색어, 경기 예측

“구글 검색어를 이용하여 경기를 예측하는 각국의 중앙은행”



□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구글 검색을 활용하여 향후 경기를 예측

-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최초로 구글 검색어를 경기 지표에 반영하는 사례를 선보이며 경기예측에 활용
- 뒤이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그리고 칠레의 중앙은행도 유사한 방법으로 경기를 예측

□ 구글 검색어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는 데에 기여하며, 중앙은행이 검색어를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

-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정부 통계를 발표하기 전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의존하여 키워드를 분석

- 각 중앙은행의 경제학자들은 구글 데이터와 경제 추세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통해 구글 데이터 활용의 신뢰성을 입증
- 중앙은행이 전통적인 자료에 의존하는 것보다 구글 검색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더 합리적인 예측을 유도


□ **한편 과거부터 구글 검색어를 경기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충분한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옴**

- 불과 2004년까지만 해도 구글 검색어 표본은 노인과 저소득층의 구매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음
 - 위 계층은 인터넷 사용에 취약하고 오프라인 위주로 구매활동을 하기 때문
- 구글 활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이를 활용하여 거시경제 변수를 예측할 경우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 또한 존재
- 이에 따라 구글 검색어 활용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

□ **그러나 신뢰성이 충분하다고 입증하는 연구가 있으며 구글 데이터를 반영하여 경제 지표를 예측하는 국가 중앙은행들이 늘어나는 추세**

- 과거 미 상무부의 월간 경제 보고서는 2주 전의 상황을 반영하여 발행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으나, 구글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 구글은 최신 데이터를 검색한지 하루에서 삼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보고서에 현재 상황 반영을 가능하게 함
- 스페인 중앙은행의 영국 여행과 관련한 구글 검색어 분석은 영국 여행자들의 스페인 유입을 한 달 앞서 예측할 수 있게 함
- 뉴욕 연방은행은 구글 데이터를 배제한 예측 모델과 구글 데이터를 포함한 예측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구글 데이터를 포함한 예측 모델의 더 높은 정확성을 증명

□ **따라서 중앙은행들은 구글 검색어에 대해 민첩하게 반응함으로써 경기 침체 및 회복에 선견지명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구글 검색어의 활용으로 인한 경기 예측력의 증대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경기 회복, 경기 거품과 같은 여러 경제 현상에 중앙은행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
-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막대한 양의 정보를 보유한 구글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 예측 모델은 매력적이라고 평가됨 

Spotify Is Growing—But Why Isn't It Growing Faster?

* 기사출처: [TIME \(2012.08.16\)](http://time.com/2012/08/16/)

* 요약자: 김시연 (rea1200@hanyang.ac.kr)

* 키워드: **스트리밍, 음악산업**

“소비자 심리와 경쟁 서비스로 인한 스포티파이의 위기와 전망”

□ 스포티파이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침체된 음악산업을 부흥시킬 기대주로 부상

-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음악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기타 음원 서비스 업체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며 성장
- 스포티파이에 등록된 전 세계 사용자 수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 유사업체인 랩소디는 100만 명의 유료 사용자를 달성하는데 11년이 걸린 반면 스포티파이는 이를 7분기 만에 달성
- 브로드밴드와 4G 모바일 기술 사용의 도입은 스포티파이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


□ 한편,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음악감상 수단의 이용 증가, 불법복제 음원 다운로드 증가 등의 이유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위기에 직면

- 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8세 내외 청소년 66% 가량이 무료 서비스인 유튜브로 음악을 감상
 - 반면 동일 조사에서 대표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판도라의 이용률은 35%에 그침
- 또한 대부분의 성인들의 경우, 라디오로 새로운 음악을 찾고 CD나 아이튠즈, 카세트 테이프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음악을 감상
- 소비자들이 불법복제 음원을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점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음악을 소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강한 욕구가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전을 방해

-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디지털 다운로드, CD,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다양한 조합으로 음악을 감상
 - 지난 해 CD 판매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디지털 다운로드 건수와 레코드, 앨범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
- 디지털 상에서만 음악을 소비하는 층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
 - 스포티파이 사용자들의 70%는 음악을 소장하기 위해 아이튠즈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서비스를 함께 구매
- 소비자들의 이러한 심리는 오랫동안 음반을 구매해왔던 습관과 음악이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생각에 기인
 - 음악을 소유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이 스포티파이의 한 달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이 왜 9.99달러에 불과한지를 잘 설명

□ 스포티파이가 직면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닐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전망은 긍정적

- 스포티파이는 디지털 공간을 장악한 아이튠즈의 판매량을 끌어오지 못했고 소비자들의 지불용의를 높일 수 있을지 불확실
- 하지만 젊은 세대의 높은 유튜브 이용률은 그들이 음악을 소장하는 것에 특별히 큰 중요성을 두지는 않음을 시사
- 따라서 음악 소장을 대신해 온라인 상에 재생목록을 저장하게 한다면 스트리밍 서비스와 침체된 음악 시장이 동반 활성화될 수 있을 것 

My Dollar, My Rules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2.08.11\)](#)

* 요약자: 조경흠 (polarbear5@hanyang.ac.kr) * 키워드: **스탠다드 차타드, 불법자금거래**

“불법자금거래 혐의와 함께 추락하는 스탠다드 차타드”



- 글로벌 금융기관 스탠다드 차타드(Standard Chartered, SC)의 주식이 불법자금 거래 혐의와 함께 폭락
 -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국가와의 금융거래에 사업 초점을 맞춘 SC
 - SC의 본부는 런던에 있지만 2011년 SC의 영미 및 유럽 대륙에서의 세전 수익은 전체 수익의 5%에 불과
 - 최근 뉴욕 금융감독청이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와 금융기관 간의 자금거래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면서, SC와 이란과의 불법자금거래 혐의를 포착
 - 이에 따라 SC의 주가는 8월 7일 런던 금융시장에서 18% 이상 하락하며 시가총액의 1/5 가량이 증발
- 뉴욕 금융감독청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SC와 이란 사이의 불법자금거래 혐의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예고

- 금융감독청은 SC의 불법자금거래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테러리스트, 무기 거래 상 등에게 노출시켜, 시스템 수준을 격하시켰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벌금 부과와 함께 영업 정지까지도 검토 중임을 강력히 시사
- 또한 2001년부터 시작된 이란과의 거래는 SC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로 시작되어 철저하게 관리되었다고 주장
 - 불법자금거래는 2001년에서 2007년 사이에 주로 발생했으며, 이란과의 거래 자금이 최종적으로 이란 이외의 국가로 송금되는 '유턴거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 그러나 미국에서 제재 국가와의 유턴거래 방식은 2008년 이후 금지됨
 - 또한 SC의 회계감사 담당인 딜로이트앤투시는 SC에게는 금융감독청의 조사 방법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금융감독청에게는 민감한 사항이 누락된 보고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음

유턴거래 (U-turn' transaction)


거래 자금이 최종적으로 거래한 국가 이외 국가로 송금이 되는 경우이다. 미국은 1997년부터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이전까지는 이란과의 '유턴거래'에 한해서 당국 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이란이 핵무기개발관련 자금 거래에 자국의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행위를 금지시켰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SC는 자신들의 거래는 합법적인 유턴거래라 주장하며, 오히려 미국의 반(反)런던협약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청의 주장을 전면 부인

- SC는 이란과의 거래 중 99.9%가 합법적인 유턴거래로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청의 주장을 부인하였고, 딜로이트앤투시 역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
- 영국 정치인들 또한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근 HSBC와 바클레이즈에 대한 조사에 이어 SC에 대한 조사는 미국이 반런던협약(Anti-London agenda)를 추구하는 것이라 주장

□ 그러나 SC가 금융연결 다리(Financial Bridge)인 뉴욕지점의 영업허가를 박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 달러 기반 거래의 경우 미국의 시스템을 거쳐야 하므로 뉴욕지점은 SC의 전세계 70개국 지점과의 연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
- 또한 JP모건, 노던 트러스트와 같은 미국 은행들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문제 

What's in a Title? Overcoming a 'Crisis' of CEO Credibility* 기사출처: Knowledge@Wharton (2012.08.01)

* 요약자: 임소연 (cian92@hanyang.ac.kr)

* 키워드: CEO, 신뢰성, 리더십

“오늘날 CEO들이 처한 신뢰성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 최근 대기업 관련 스캔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CEO가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비난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JP모건의 회장은 파생상품 손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오히려 최고운영책임자(CIO)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투자자들의 분노를 삼
-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의 CEO는 사임된 이후에도 회사가 리보금리 조작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
- 설령 회사의 부정행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스캔들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CEO

리보금리 조작 스캔들

리보금리는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일류 은행들이 자기들끼리의 단기적인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를 말한다. 현재 세계 각국의 국제간 금융거래에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는 금리로서 그 중요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 때 영란은행의 암묵적인 묵인 아래 대대적인 리보금리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상 은행들에 규제당국의 벌금 징수, 최고임원진 사퇴가 나타났으며 천문학적 금액의 집단 소송도 걸린 상황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투데이

□ 기업 관련 스캔들의 발생은 일차적으로 현재 CEO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졌다는 사실에 기인

-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국제 경영 시대가 도래

- 지난해 포드는 전세계에서 500만여 대의 차량 판매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27년에 비해 20배가 넘는 수치
- 사업 분야가 다각화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현실적으로 CEO가 자신이 아는 분야에서만 경영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의 복잡성 심화는 CEO의 역할과 책임을 가중시킴
 - 주주는 거래내역 보고서(SEC filing)와 실시간 뉴스로 쉽게 기업의 정보 습득이 가능
 - 새로운 형태의 증권인 합성부채담보부증권(Synthetic CDO)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기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함

□ 그러나 총체적으로 CEO들이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 중 하나는 잘못된 리더십의 소유

- 조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CEO는 회사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함
 - 효율성만을 중시하고 가시적 성과에만 매진하다 보니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
- 따라서 직원들이 실수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회사에 더 큰 문제를 야기

□ 전문가들은 주의 깊은 리더십이 경영에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리더십이라고 조언


- 주의 깊은 리더십을 가진 경영자는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임원부터 최하층 직원까지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용
 - 비즈니스에 내포된 불안정성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이를 포용하는 경향을 보임
-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인텔의 경영자였던 앤디 그로브는 이러한 리더십을 갖춘 CEO의 전형으로 평가됨
 - 말단사원부터 시작하여 CEO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회사의 전반적인 사정에 능통하며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확실

□ CEO는 문제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야 함

- CEO는 직원들에게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 또한 문제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긴급 상황 선포, 후속 조치 시행 등 직접적인 해결을 해야 함
- 지속적으로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CEO는 항상 경계하고 업무에 관여도가 높은 임원진을 활용한 팀의 운영도 요구됨

□ 열린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직의 문화가 요구되며, 결론적으로 경영의 근본을 잊지 않는 것 또한 CEO의 역할

- 정직의 문화를 위해 CEO는 모든 계층의 직원들과 소통하며, 고객과 직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
- 직원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어 그들이 진심으로 회사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
 -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쉘츠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 보험 제도 도입
- 결론적으로 기업간 경쟁, 내부 환경, 소비자에의 대응 등 지난 수 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본질적인 문제에 준비하고 문제시 즉시 대처하는 것이 CEO의 역할과 책임일 것 

Is the Stock Market Really Dying?

* 기사출처: [TIME \(2012.08.14\)](#)

* 요약자: 김효진 (khskhshj@hanyang.ac.kr)

* 키워드: 미국 주식시장 전망

“단기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회복이 예상되는 미국의 주식시장”

□ 최근 주식에 대한 비관론의 확산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

- 투자자들이 더 이상 주식을 안정적인 투자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음에 따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
 - 개인 투자자들 역시 오랜 기간 지속된 시장침체로 주식시장 회복에 대한 의문을 가짐
- 그 결과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급속히 발을 빼고 있으며 경기회복세와 새로운 강세시장의 등장에도 확산되는 비관론은 이를 가속화
 -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

□ 외부 악재와 최근 제기된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인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론은 더욱 확산

-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부정적인 외부환경이 비관적인 전망을 강화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률, 절망적인 부동산시장은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함
 - 최근 경제회복 추세는 통상 침체기 이후 회복세의 반도 못 미치는 더딘 수준
- 최근 주식시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존재
 - 페이스북의 실망스런 기업공개(IPO) 결과는 투자자의 실망을 야기
 -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의 도입으로 블루칩 기업들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

□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들은 불완전한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더욱 극단적인 견해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

-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저널리스트는 불완전한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인한 급격한 증시의 변동에 대한 우려를 표함
-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이 통제불능이라는 인식을 양산하며, 다수 개인투자자들이 급격한 주가 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음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한 우려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수천 번의 주문을 반복하는 초단타매매,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가 가능해짐으로써 이로 인한 주식시장의 안정성 붕괴, 주식시장의 투기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초단타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의한 투자가 아닌 시장의 단순한 데이터 패턴분석을 통한 매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단타매매로 인해 특정기업의 주가가 하루에 수십 차례 이상 급변동하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컴퓨터 트레이딩으로 인해 주식시장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CNBC.com 'Is High-Speed Computer Trading Killing' 요약

- 주식시장 비관론은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제기되기도 함
 - 펴코의 최고투자책임자인 빌 그로스에 따르면 70년대 이후의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희생하여 이익을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지적
 -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과거처럼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주식을 장기투자자로 생각하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이러한 비관론을 반박하는 견해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

- 페이스북이라는 한 기업의 주가 폭락이 주식시장 전체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저널리스트들은 투자자보다 일반 대중의 관심을 더 끄는 통신업체나 영화사에 대한 보도에 집중
 - 이에 반해 대중의 관심이 낮은 전력회사의 경우, 지난 2년간 최고 20%의 주가 상승을 보여 페이스북과 대조
- 또한 현재 상황은 지난 2009년의 경제 침체기보다 오히려 나은 상태
 - 실망스러운 수치이나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악의 상태는 넘어선 상태
 - 회복세는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S&P 500 지수가 지난 2009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

□ 또한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원래 시장의 모습을 회복할 전망

- 주식시장은 지난 10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일관성을 보여주었음
 -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
 - 블루칩 기업들의 수익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결국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
 -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어떠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수익률을 유지하였으며, 수년간의 침체 이후에도 원래 시장의 모습을 회복해왔음

□ 투자자들에게는 현재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삼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

- 주식시장은 바닥을 친 후 점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추세
 - 주식시장이 바닥을 기록한 후 몇 년에 걸친 회복단계에서의 비관론은 종종 절정에 달함
 - 1979년 비즈니스위크는 주식시장의 종말을 예견하였으나, 오히려 80년대에 들어 주가지수는 전례 없이 세 배나 상승
- 투자자들은 비관론에 현혹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현명한 투자를 해야 함
 - 지속적인 주식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성장을 보이며 2.5%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
 - 주식시장의 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블루칩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로 작용 **FBI**

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fbi.hanyang@gmail.com)

Advisor: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victory@hanyang.ac.kr)

Editor in Chief: 김한결 (rocky87@hanyang.ac.kr)

Associate Editor: 박나현 (nh313131@hanyang.ac.kr)

Copy Editor: 김시연 (rea1200@hanyang.ac.kr), 김지연 (jiyeon7303@hanyang.ac.kr), 이창석 (laims2@hanyang.ac.kr)